

홍승희 “나빌레라’, 제게도 위로 건네…현실 속 ‘은호’들 힘내길”

tvN 드라마 ‘나빌레라’ 종영 인터뷰

박인환 손녀 ‘심은호’로 청춘 그려

넷플릭스 ‘무브 투 헤븐’으로 인사

“‘은호’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은호가 앓을 깨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면 해요.”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청춘의 한 단면을 그려낸 배우 홍승희는 자신이 맡은 ‘심은호’와 같은 지금의 청춘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뉴시스 사옥에서 만난 홍승희는 “‘나빌레라’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따뜻함을 시청자들이 그대로 느껴주셔서 기쁘다”라고 종영 소감을 말했다.

‘나빌레라’는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박인환)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송강)의 성장을 그린 드라마다. 치열하게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황혼과 청춘의 꿈을 응원하며 따뜻한 이야기로 호평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홍승희는 극 중 ‘덕출’의 손녀로 어릴 적부터 아빠 ‘성산’(정해균)의 계획대로 살아오다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은호’를 연기했다.

“(대본에서) 맨 처음 은호를 만났을 때, 오래 청춘들이 은호에게 공감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감독님도 제 나이대의 20대 초반 친구들이 겪는 감정이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박인환·나문희, 대선배들 앞에서 긴장…첫 촬영 후 걱정 사라졌죠”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홍승희는 당시를 떠올리며 “후회가 없었다”고 했다. 연출을 맡은 한동화 감독은 제작발표회 당시 홍승희에 대해 “오디션을 했는데 톡톡튀는 연기를

잘해서 놀랐다. 주저 없이 캐스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은호 대사를 발췌한 세 장면으로 오디션을 봤다. 준비한 건 다 보여드렸고, 오디션을 보고 나왔을 때 후회가 없었다. 캐스팅 소식에 ‘야호’를 외쳤다”고 수줍게 웃었다.

‘나빌레라’ 속 덕출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손녀 은호를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장면들은 안방극장에 감동을 안겼다. 은호가 인턴 실습을 하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견뎌냈지만 결국 떨어져 좌절하자 묵묵히 격려하고, 한편으로 상사에게 따끔한 일침을 남긴다. 이후 좋아 하는 일을 찾아 나선 은호가 근무하는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등 따뜻한 응원을 건넨다.

“정말 ‘덕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은호’를 위해서 위로해주는데, ‘은호’에서 빠져나와 홍승희로 봤을 때도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았죠. 현장에서 은호 자체로, 박인환 선생님 덕분에 위로받으며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 역시 청춘을 살아내는 한 명이다. 홍승희는 청춘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소소하고 구체적인 수도 있겠다’는 대사를 건넸다. “채록’과 주고받는 대사였는데 참 와닿았어요. 큰 행복은 띄엄띄엄 오기도 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놓치게 되는 게 많죠. 주변을 둘러보면 사소하지만 행복한 일들이 있고, 나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인환, 나문희 등 대선배들과 함께 출연해 처음엔 긴장도 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덕출’의 철순 잔치 장면을 앞두고는 떨리는 마음에 식은땀도 났다. 하지만 따뜻한 현장 분위기에 이내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사실 긴장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는

데, 한번 다녀온 후 그런 걱정들이 싹 사라졌다”며 “선생님들이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치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온 것처럼 즐겁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명장면으로는 최종회 엔딩을 꼽았다. ‘덕출’과 ‘채록’이 합동 공연을 마친 후 3년 만에 재회하는 신이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덕출’은 그 순간만큼은 ‘채록’에게 “날아올랐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빙긋이 미소 짓는다.

“역대급 엔딩이었죠. ‘날아올랐어?’라는 다섯 글자가 ‘나빌레라’ 드라마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촬영 현장에 없었으니까 처음 보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은호”는 송강이 연기한 ‘채록’과는 서로를 응원해주며 친구가 되어간다. 홍승희는 “나이가 비슷해서 편하게 웃으며 연기할 수 있었다”며 “‘채록’과 ‘은호’는 곁에서 힘이 되어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나간다. 그 끈끈한 우정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2018년 데뷔 후 첫 주연…“앞으로 이 길 걸어가는데 힘 준 작품”

극 중 ‘은호’는 우연히 라디오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간다. 은호가 꿈을 찾아가듯, 홍승희에게도 연기가 그런 존재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재밌다, 신기하다.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처음 맛봤을 때 같았죠. 저도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제안했고 학원 수업을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빌레라’가 시청자들에게 ‘힐링 드라마’로 꼽히듯, 자신에게도 같은 의미라고 했다. “많은 분이 위로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 배우로서 제게도 ‘나빌레라’는 힘과 위로를 많이 준 작품이에요. 앞으로도 다른 작품을 하고 이 길을 꼭 걸어가도록 힘을 실어준 작품이죠.”

지난 2018년 드라마 ‘뽀빠이’로 데뷔한 홍승희는 ‘나빌레라’로 첫 주연을 맡았다. 그는 “사실 부담감도 있었지만, 감독님이 부담을 내려놓고 연기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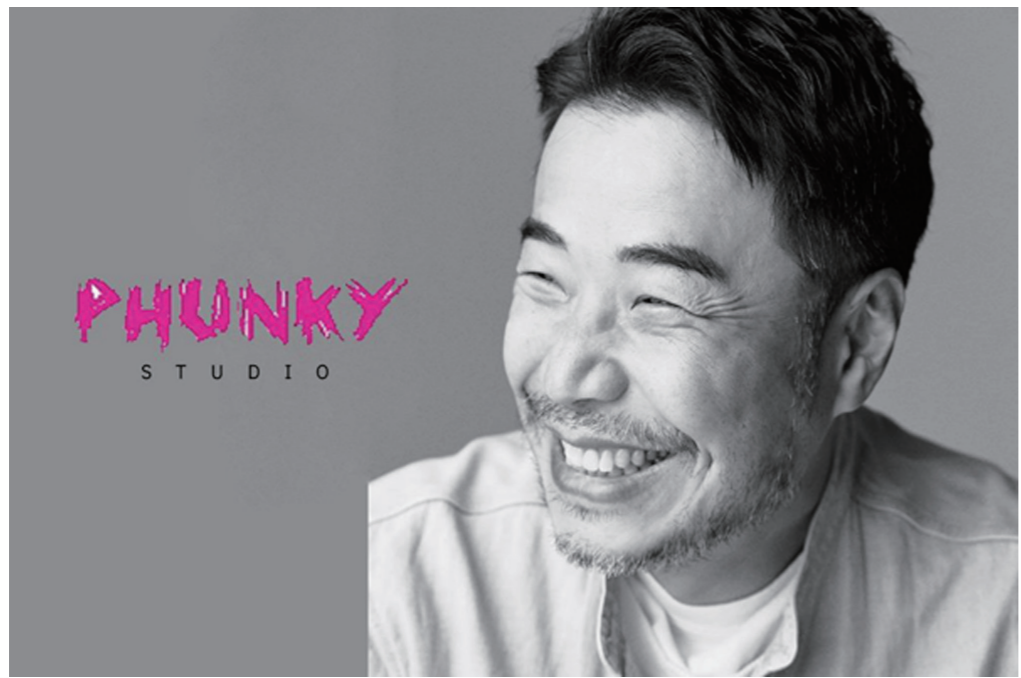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현장의 모든 분 덕분에 연기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나빌레라’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홍승희는 앞으로 더 친근한 배우로 다가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좋아하는 장르로 하이틴물과 로맨스물을 꼽으며 “좋아하는 장르를 찍는다면 행복한 일”이라고 웃었다.

“이번 작품으로 저를 처음 알게 됐으며, 응

원해주고 이전 작품까지 다시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작품과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자주 인사를 드리는 게 목표죠. 지금처럼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싶어요.”

홍승희는 내달 14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를 통해 대중들을 다시 만난다.



한동철PD, ‘걸그룹 오디션’ 여정 스타트

오는 11월 첫 방송 예정

엠넷과 YG엔터테인먼트에 몸 담았던 한동철 PD가 숨은 걸그룹 원색 찾기에 나선다.

한 PD는 MBC와 함께 글로벌 걸그룹이 될 지원자를 찾기 위해 각 기획사와 미팅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대형 기획사부터 군소 기획사까지, 최대한

많은 기획사와 미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 PD가 제작에 돌입한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13세 이상 국적 불문의 여성이다.

201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다. 한동철 PD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원색을 찾아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첫 방송 예정이다. 뉴시스

안재모, 18년 만에 ‘킹두한’ 컴백…카카오TV ‘야인 이즈 백’

오는 13일 오후 8시 카카오TV서 처음 선보여

배우 안재모가 18년 만에 부케 ‘킹두한’으로 돌아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00년대를 풍미했던 레전드 드라마 속 사나이들의 화끈한 감성에 폭소만발 웃음까지 더한 카카오TV 오리지널 ‘야인 이즈 백’을 기획·제작한다.

‘야인 이즈 백’은 각 15분 내외로 제작된다. 오는 5월13일 오후 8시 카카오TV에서 처음 선보이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에 공개된다.

‘야인 이즈 백’은 안재모가 2000년대 초반 범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로 변신, ‘킹두한’이 되어 펼쳐지는 2021년판 잔내 누아르다.

2021년 요즘 세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실프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넘치는 킹두한의 우여곡절을 전한 B급 감성의 페이크 다크로 풀어낸다.

안재모는 2000년대 당시 최고 시청률 57%를 기록,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 각종 ‘뽀’로 무한 재생산되며 회자되고 있는 전설적인 드라마 ‘야인시대’

로 큰 인기를 누리며 있다.

불의와 배신이 판치는 이 시대에 화끈한 참교육을 펼치려는 킹두한이 ‘라떼’ 시절과는 사뭇 다른 요즘 세대에 당황을 금치 못하면서도, 항상 조절정 진지모드로 임하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킹두한’ 전편인 개그맨 이진호가 가세, 킹두한의 예측 불가 활약을 이끌어내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킹두한 코루로 나선다.

이진호가 평범한 40대 중년이 된 안재모의 잔한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그를 하드 트레이닝 시키며 쥐락펴락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케미가 펼쳐진다.

더욱이 170만 구독자를 보유한 개그 유튜브 ‘보물섬’의 이현석이 이진호의 팬이라는 이유로 ‘야인 이즈 백’에 합류해, 킹두한의 동료 대역부터 조연출, 유튜브 자문까지 떠맡은 비운의 인물로 웃음을 준다.

이들이 제작하는 유튜브 ‘킹두한TV’ 채널에서는 킹두한의 다채로운 활약과 그에 얽힌 흥미로운 상황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유일한 PD는 “18년 동안 전



성기 시절을 추억해도다 킹두한으로 거듭난 안재모, 안재모보다 킹두한에 더 진실인 성덕 이진호 등 킹두한 코루의 폭소만발 케미를 기대해 달라”며 “과거 안재모의 동료로 조절정 인기를 누렸던 배우들도 출연할 예정이니 야인의 향수를 기억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아이즈원, 마지막 인사 남기고 ‘해체’

한일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IZ*ONE)’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아이즈원은 1일 공식 SNS에 “아이즈 온 미(Eyes on me)!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함께해온 시간 동안 변함없는 아이즈원의 세상이자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활동 기간 동안 찍은 아이

즈원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

아이즈원은 2018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통해 탄생한 프로젝트 걸그룹이다. 이들은 당초 예정된 2년 6개월의 활동을 채우고 지난달 29일 공식 해체했다.

각자 소속사로 돌아간 아이즈원 멤버들은 소속사와 논의 후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학폭 의혹’ 박혜수, 활동 재개…독립영화 ‘너와 나’ 촬영



10대들의 이야기 담은 멜로 드라마

학교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박혜수가 활동을 재개했다.

30일 소속사 스튜디오 산터클로스에 따르면 박혜수는 최근 배우 조현철이 연출하는 독립영화 ‘너와 나’ 촬영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너와 나’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멜로 드

라마로 박혜수를 중심으로 신예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수는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단체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혜수가 주연으로 나선 KBS 2TV ‘디어엠’은 2월26일 첫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편성을 무기한 연기했다.